opusdei.org

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

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 인데,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 징이다.

2019-12-24

주님 성탄 대축일 -밤 미사 복음-

☆ 루카의 거룩한 복음. 2,1-14

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 령이 내려,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 게 되었다.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 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에 실시되었다.그래서 모두 호적 등 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 다.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 을을 떠나 유다 지방, 베들레헴이라 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. 그 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 다.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 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, 마리아 는 임신 중이었다.그들이 거기에 머 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 어, 첫아들을 낳았다.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. 여관 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.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 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 다.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.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.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.

"두려워하지 마라. 보라,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.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, 주그리스도이시다.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,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."

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 게 찬미하였다."지극히 높은 곳에서 는 하느님께 영광땅에서는 그분 마음 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!"

묵상

여러분은 구원자(메시아)의 오심을 간절히 원하며 고대하던 성조(아브라 함, 야곱, 이사악)들의 그 거룩한 갈망 을 기억하십니까?

많은 사람들이 보길 간절히 원했지만 결코 보지 못했던 분을 본 우리의 눈 과 많은 사람들이 듣길 간절히 원했 지만 결코 듣지 못했던 그분의 소리 를 들은 우리는 행복합니다.

포대기에 감싸여진 창조주, 아기의 모습에서 하느님을 본 우리는 행복합 니다.

구유에서 구세주를 만난 우리는 행복 합니다.

마리아의 팔로 구원을 움켜잡음을 관 상하는 우리는 행복합니다.

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그의 양아들 에게 입을 맞추는 요셉을 바라보는 우리는 행복합니다.

천사들의 노래를 듣는 우리는 행복합 니다.

그 아기를 흠숭하는 목동들을 보는 우리는 행복합니다.

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아 온 우리는 행복합니다. 기다림은 끝났고, 하느님께서 여기 계십니다. 복된 크리스마스를 느낍시 다.

악마는 지금 아기의 앞에서 떨고 있 습니다.

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그 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지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.

그렇기에 오늘은 관상과 경청, 노래 와...사랑을 위한 날입니다.

"베들레햄으로 향하는 당신의 길을 만드십시오. 가서 그 아기를 당신의 팔로 안아 춤을 추며 따뜻하게 말하 십시오. 부드럽게 다루며 당신의 가 슴에 가까이 안으십시오...저는 유치 한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저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! 사랑 은 행실로 보여집니다. 당신의 영혼 의 그 친밀함 안에서, 당신은 그 아기 를 꽉 안을 수 있습니다." 대장간 345항 (성 호세마리아)

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저의 어머니 이신 마리아여, 그 아기를 보여주소 서!

I pray 번역 원문 : George Boronat 신부

번역: 정대영 요셉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12weol-25il-junim-seongtan-daecugil/ (2025-11-7)